



꺾여도 그냥 하는 용기

달천고 1-2 배수연

그대는 살면서 ‘용기’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용기를 가진 사람을 보면 용기를 볼 수 있다. 올림픽 생중계를 볼 때, 자신의 차례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의 눈빛을 보면 긴장과 동시에 용기를 볼 수 있다. 또한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자신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난 할 수 있다’라는 용기의 태도를 가지고 노래를 시작하는 가수들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교 축제에 나가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트윙킹과 같은 우스운 춤을 추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 결정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기’를 생각하면 이와 같은 용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나는 앞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용기를 찾았다.

내가 생각하는 ‘조금 다른 용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그 용기를 찾게 된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고입에 반영되는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수학학원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곤 했다. 나도 공부에 어느 정도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동

기부여를 들으면 의지가 엄청 차오르면서 당장이라도 하루 공부 시간 10시간을 채울 수 있을 듯했다.

하지만 그다음 날,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안에 흘러넘치던 동기와 의지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휴대폰을 보며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나’만이 남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선생님들 덕분에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지만, 집에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트러졌다. 그리고 정확히 밤 12시 정각이 되면, 비로소 후회가 밀려왔다.

‘아, 공부했어야 했는데….’하고 말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피곤해서 공부는 10분도 못 하고 줄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차피 오늘 공부 더하기는 글렀는데, 휴대폰 조금만 더 하다가 잘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생각까지 미치면 끝이다. 1시, 2시… 시간은 간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찝찝함을 남긴 채 말이다. 그 생활이 반복되자, 나는 이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내일부터 계획을 짜고, 공부 시간을 정해 공부 시간을 늘리고, 일찍 자서 다음 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용기를 가져보기로 했다.

…… 하지만 슬프게도, 이 용기마저도 반복의 굴레에 빠졌다. 이 용기를 지속시키기에 내 의지는 한없이 약했고, 동기는 너무나도 일시적이었다. 나중에는 ‘내가 이 반복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어떡하지?’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변화할 가능성은 만무해질 터였다.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적다 보니 과거를 너무 깊이 회



상해버렸다...) 바로 말하자면,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생각해 낸 용기는 바로 ‘의지와 동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용기’이다. ‘Just do it’이라는 문구를 아는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냥 하는 것’, 나에는 그것이 필요했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동기라도, 목숨이 걸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엄청난 의지라도, 평화로운 일상의 흐름에 바로 깨져버리는 것이 의지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어떤 일을 지속할 용기가 아니라, 어떤 일을 지속할 의지나 동기가 부서져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계속할 용기를 말이다. 이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 꼭 유지되는 용기와 내가 생각한 용기의 차이점이다. 꺾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꺾여도 계속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하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나는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기라고 생각해서, 동기가 사라져버리면 내 용기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글을 읽으며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꾸밈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내 동기나 의지가 사라지든 말든 상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이 많으면,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나를 너무나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러려면 고민을 멈추고(생각을 줄이고), 그냥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한다(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동기나 의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동기나 의지로 생겨난 행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럼 글쓴이는 그 용기로 행

동을 지속시키는 것에 성공했을까?’와 같은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터득했다면 전교 극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아주 오래 지속시켜본 적은 없다.

하지만 너무 오랜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좀 줄었고 행동력이 는 것은 체감할 수 있다. 또한 힘든 시간 뒤에는 항상 보상이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 보상이 이러한 깨달음이라면 ‘내 고생이 꽤 가치가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나아질 나를 고대하며 이 긴 글을 마친다.

나와 독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